

영암 이어 나주시도 고병원성 AI... '무증세' 확산 비상

〈조류인플루엔자〉

오리에는 증세 동반하지 않는 '무증세 AI' 습격 국내 최대 사육지 비상
함평 고막원천·순천만 등 전국 야생 조류 22건서 잇따라...대유행 우려

나주시 세지면 육용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결국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영암 시중에 이어 전남에선 2번째, 전국에서는 6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이다. 증세를 동반하지 않는 '무증세 고병원성 AI'가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 나주를 파고들면서 사육농가와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9일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견된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 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으로 전남도 방역검사서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서에서 최종 확진됐다.

전남도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 8일 자체 검사서에서 항원이 검출되자,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오리 3만2000수를 살처분했다. 반경 3km 이내 농장 13곳 39만6000수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분류했다.

발생 농장과 인근 농장 등 오리 20만수 살처분과 함께 도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종사자·가족의 이동 제한 및 출입자 통제 조치를 내렸다. 인근 도축장에 대해서는 방역지역 10km 이내 닭·오리만 정밀검사해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을 허용하

기로 했다.

다만 반경 2~3km 이내 산란계(4곳 29만수)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닭의 경우 오리와 달리 증세가 확인해 초기 즉각적인 판별이 가능한 데다, AI 발생 농장과 연계성 또한 크지 않은 반면 농가 피해는 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신 발생 농장 반경 1km 이내 오리 농장(9개 농가, 17만수)에 대해서는 즉각 예방적 살처분에 돌입한다. 반경 1~2km에는 가금 농장이 없다.

이윤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전남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km 반경 오리농장에 대해선 예방적 살처분에 적극 돌입하되, 2~3km 반경에 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선 중앙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 살처분 제의를 건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오전 진행된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닭·오리 농장 13곳(46만수)에 대한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52곳(248만수)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올 들어 전국에서는 정읍, 경북 상주, 영암, 경기 여주, 충북 음성 농장에 이어 나주에서도 AI가 확진되면서 AI 대유행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감염원은



9일 오후 나주시 세지면 한 육용 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으로 인해 인근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지목된 야생 조류 검사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최근 2년 전국에선 야생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올 들어선 함평 고막원천(7일), 순천만(8일)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을

비롯해 전국의 야생 철새에서 모두 22건의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형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광주시, 국내 우수 인공지능 전문기업 60개와 업무협약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를 선포한 광주시가 광주형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AI 전문기업인 (주)AIET, 디포커스(주), (주)마크에니, (주)스프링클라우드, 티쓰리류(주)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56~60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들은 협약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및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10월 인코어드 P&P와 처음으로 투자협약을 맺은 이후 이날까지 전국 60개 인공지능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다져가고 있다.

이날 광주시와 협약을 맺은 (주)AIET는 AI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고유 홍채인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AI종합플랫폼 개발 전문기업이다.

디포커스(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기업(민간, 공공)이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적의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 솔루션 제공 전문기업이다. (주)마크에니는 문서보안, 증명서 위변조 방지기술 등 CCTV보안관리, 인공지능 지능형 CCTV선별관제 등을 자체 개발한 전문기업이다.

(주)스프링클라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운영 및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T3Q(주)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개발자·공급자·사용자가 상생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웰빙 수산물 톳·미역 본격 출하

완도서 전국 생산량 40~60% 차지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 등 전남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웰빙 수산물 톳, 미역 채취가 시작돼 서울 등 대도시로 본격 출하되고 있다

9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톳, 미역은 갈슘, 알긴산, 무기질 등이 풍부해 산후조리, 변비, 혈압 강하작용, 콜레스테롤 감소,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고 중금속, 미세먼지 배출 등에 도움이 된다. 과학원은 웰빙 수산물로 면역력 회복·코로나 19 피로감 해소 등과 함께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완도군 해조류 생산량은 78만t(1373억원)으로 전국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역은 50만t(386억원, 전국 비중 46%), 톳은 6000t

(45억원, 전국 비중 60%)를 생산하고 있다.

나물용 톳, 미역은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채취하며, 지난해 톳은 kg당 2500~3000원, 미역은 400~500원에 판매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톳은 250원, 미역은 500원 가격이 하락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전남 해조류 양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국내외 우량 해조류 품종을 확보, 보존해 나가는 한편, 톳 인공지능생산 산업화 기술개발 등 해조류 품종개발 연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아이낱아 키우기 좋은 플랫폼 아이친구' 운영

광주시가 임신·출산·양육부터 일·생활까지 다양한 돌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아이낱아 키우기 좋은 광주 플랫폼 아이친구(1279)'(www.1279.or.kr)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중앙정부-지자체-돌봄기관 등에서 각각 운영되면서 서비스 이용 불편과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이친구(1279)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돌봄정보를 한 곳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설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상황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상담, 연계할 수 있는 돌봄의 허브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아이친구(1279)는 생애주기별 지원 서비스 메뉴와 맞춤형 정보 검색서비스, 서비스 이용 예약기능, 돌봄지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또한,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한 전문 돌봄코디네이터들이 임신·출산, 육아, 부모교육, 초등돌봄 등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 연계 서비스도 수행해 시민들의 돌봄 궁금증과 각종 정책에 대해 맞춤형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보좌관 급여 착복' 나현 전 광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88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비례대표였던 나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원들이 분담한 의회 시설 보좌관 급여 중 880만원을 보좌관이 직접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의원들이 부당해야 할 공동경비를 보

좌관이 내도록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나씨는 앞서 광주시의회에서 제명됐고 이에 불복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패소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나 의원의 자리는 비례대표 후순위인 최미정 민주당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 위원이 이어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왕조의 뿌리를 지켜낸 정읍의 정신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전쟁의 불길 속에 유일하게 남겨진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 이를 지키기 위해

식솔과 노비, 우마차를 동원한 정읍의 선비 안의와 손홍록, 희묵대사 그리고 수 많은 정읍사람들...

내장산 깊은 곳에서 370여일 간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은 500년 조선왕조의 뿌리였습니다.

정읍의 정신이었습니다.